

'25. 10. 3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테

- 韓,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행유예
 - 9.28 언론은 불법체류 중인 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, 同人은 '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제 테러단체(KTJ)에 3차례에 걸쳐 78만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
 - ※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자하드(KTJ)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의 전투부대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, UN은 '22년 테러단체로 지정
- 韓, 추석 연휴 2주간 종합치안대책 가동
 - 9.28 경찰은 '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간(9.29~10.12)을 운영해 주취 폭력, 가정 폭력 등에 대해 신속 조치할 방침이며,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교통 관리 및 공항·기차역 등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고 발표
 - ※ 경찰청은 연휴 기간 경무관급 상황관리관을 운영해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, 경찰서 보관 총기는 출고가 금지된다고 부언
- 韓, “불꽃축제 총기 난사” SNS 협박글 올린 용의자 체포
 - 9.28 언론은 SNS에 총기 테러를 암시한 글을 올린 30대를 검거했으며, 경찰은 신고 접수한 즉시 인스타그램 본사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 해 긴급 체포하였으며 휴대전화를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경찰은 “살해 예고 등 게시 행위는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행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”고 부언
- 韓, 2030세대가 공중협박 범죄 절반 차지
 - 9.29 언론은 공중협박죄 시행 후 4개월간 총 72건이 발생하고 49건(48명)의 범인이 검거됐으며, 범행 연령대*는 2030세대가 절반을 차지, 주요 동기**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도
 - * △20대(16명) △30대·60대(8명) △50대(7명) △40대(5명) △70대 이상(3명) △10대(1명)
 - ** 사회나 특정 집단 불만(13명) △당사자간 갈등·분풀이(4명) △이유없음(2명) △과실(1명) △정신이상(1명) △생활곤란(1명)

미 주

○ 美, 이민당국구금시설에 총격 발생

- 9.25 언론은 美 텍사스주 이민세관단속국(ICE)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인근 옥상에서 스스로 쏜 총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고 보도

※ 탄피에는 “안티 ICE”(ANTI ICE)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에 이념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언

○ 美, 배 위에서 해변 바로 총기난사해 3명 사망, 6명 부상

- 9.28 언론은 지난 27일 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포트 해변 바에 배를 탄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으며, 현장에서 도주한 총격범은 해안경비대에 의해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

○ 美, 미시간주 교회에서 예배 중 총격으로 최소 5명 사망

- 9.29 언론은 지난 28일 주일예배 중이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, 연방수사국(FBI)는 이번 사건을 ‘표적을 노린 폭력행위’로 규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

※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“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”이라고 언급하면서 폭력의 종식을 촉구\

○ 캐나다, 인도 갱단(로런스 비슈노이)을 테러단체로 지정

- 9.30 언론은 캐나다 정부가 2년 前 밴쿠버에서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가 암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 요원과 갱단(로런스 비슈노이)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後 형법상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고 보도

※ 로런스 비슈노이는 주로 인도에서 활동하는 초국적 범죄 조직이며 캐나다에서 인도 디아스포라(해외 이주민)를 대상으로 살인, 총격, 갈취, 협박 등의 범죄 활동을 지속 자행

역사 속 테러사건

프랑스, 마르세유 기차역 흉기 테러

- '17.10.1, 오후 1시 30분경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市 중심가의 생샤를 기차역 앞 광장에서 「아흐메드 하나치」(튀니지 국적, 남)가 자행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여성 2명 사망



<사건 현장>

- 테러범은 역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2명의 여성에게 접근 후 칼로 찔러 살해*하고 도주하다가 특별경계작전 '상티넬**'에 따라 역사 인근을 순찰하던 군인들의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
 - * 목격자들은 테러범이 범행 당시 “神은 위대하다”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언급
 - ** '15년 파리 테러(130여명 사망) 이후 14,700여명의 軍·警을 대테러 경계 임무에 상시 투입
- 사건 직후, ISIS는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“마르세유 흉기 공격 집행자는 우리들의 戰士다”라며 테러 배후를 자처
- 프랑스 경찰은 범인이 사건 자행 이전 로마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점을 확인하고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, 이탈리아 경찰은 동명의 남동생 「아니스」를 테러조직 가담과 테러 공모 혐의로 체포
- 한편, 프랑스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범인을 현장에서 적시에 제압한 '상티넬' 작전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며, “軍의 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”라고 언급

테러 상식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('04. 4월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월), 미국('04.12월), 캐나다('12.8월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월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월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월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월 스리랑카에서 ISIS 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

